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1월에 전한 소식 이후의 상황을 나눕니다.

## 1.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위로

저희에게 큐티책을 후원하고 있는 W교회의 2월 단기선교팀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귀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사전 준비 모임을 12번씩이나 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에서부터 감동을 받으며 8일 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2월 큐티 페스티벌 수료 기념]

W교회의 큐티 중심의 목장 모임을 장년과 청년, 청소년으로 나누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맛보게 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3일간의 큐티 페스티벌을 정성껏 섬겨 주셨습니다. 작년 큐티 페스티벌에 참여한 가정들이 새로운 한불가정들을 초대하는 등 작년보다 더 많은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단기선교팀과 함께 한 주일예배 시간에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한 간증과 설교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침 프랑스로 잠시 여행을 왔거나 유학 중이었던 불신자와 신앙 냉담자들도 단기선교팀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과 성도들은 말씀과 섬김으로 위로 받고, 불신자나 냉담자들은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기선교팀의 “향유 빛는 나”라는 주제대로, 선교팀 지체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이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동력, 큐티 소그룹과 훈련에 참여할 계기, 신앙생활을 잘 해 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를 통해 선교 후원 재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여러 후원자들이 일시적으로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에 일회적으로만 첫째아이 대학원 학비를 후원해 주신 모 선교회에서는 올해도 한 번 더 후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올해 2월로 지난 5년간의 재정

후원을 마무리하려던 한 후원교회는 저희 사정을 잘 헤아려 6월까지로 후원을 연장하셨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마음과 정성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교회와 후원자 분들의 증보와 관심이 이 곳에는 정말 큰 의미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 2. 목회와 전도의 이야기



[상반기 교환학생 환송 기념]

단기선교팀의 방문 전후로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큐티 소그룹과 큐티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한 학기(1~5월) 교환학생으로 온 청년들의 말씀 소그룹이, 청년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학생 기숙사의 공간을 활용하여 4-5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던 청년은 캐나다에서 한인교회를 다니던 자매였고, 한국에서 온 네 청년은 프랑스에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큐티책을 활용하여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에 비추어 삶을 해석해보며 간단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5월 중에 모임을 마쳤는데 참여한 5명의 청년들 모두가 귀국하면 교회에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단기선교팀으로 온 W교회가 가까운 동네에서 온 불신자 청년은 W교회로 연결해 달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이제 곧 낭트를 떠나게 될 이 청년들이 한국에서 참여할 좋은 교회들을 연결해 줄 책임이 저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낭트에서 불신자 한인들을 이리저리하게 만나 알게 되고, 또 이따금 저희 집에 초대하거나 밖에서 만나는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 안부를 묻고 지내던 분들 중에 최근에 3-4명 정도를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자 분들이라 변혜선 선교사의 역할이 컸고 다른 여자 집사들과 성도



[비신자들도 함께 한 봄소풍]

들도 이 분들을 전도하는 데에 있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유학생 자매는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에 가 본 일이 없었고, 또 다른 분은 신혼 때 시댁 식구들을 따라 교회 몇 번 가 본 일이 전부였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 살다가, 남편의 직장 변동으로 인해 갑자기 낭트 근처로 이사 온 분도 있는데 최근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저희가 댁을 방문하며 미역국과 반찬을 챙겨

주었습니다. 변혜선 선교사와 프랑스어 배우는 자리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2월 단기선교팀과 함께 한 큐티페스티벌에 온 한불가정 자매도 있습니다. 2월부터 거의 매 주일 예배에 참여하다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한 유학생 자매는 최근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세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꾸준히 예배에 오지는 못하지만, 계속 접촉하며 저희 가정이나 교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한인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더 확실하게 전도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3. 프랑스 선교 이야기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한국의 사이버 신천지가 프랑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여 신천지 위장교회로 포섭하는 일들이 프랑스 언론과 한국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 연맹에서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파악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재불한인교회 협회 및 프랑스 내 한인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프랑스 개신교 교단 내에서 활동하는 한인 목회자, 선교사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돕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불한인교회협회는 오래 전부터 매년 고난주간 연합 새벽 예배를 파리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차에 올해부터는 저희처럼 지방 도시 목회자들도 초빙하여 설교자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최호진 선교사가 지방 목회자로는 처음으로 파리침례교회(담임목사 이상구) 현장에서 진행하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고난주간 연합 새벽 예배 설교자로 초빙 받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한차례, 모든 기독교 교파 연합으로 “예수 대행진 Marche pour Jésus” 전도 축제를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데, 5월 2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몇 년간 다소 축소되었던 이 축제가 올해는 14개 도시로 확대되어 열릴 예정입니다. 낭트 외에도, 온라인으로 먼 지역에서 함께 큐티 소그룹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각자 가까운 도시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4. 유럽 선교회 관련, 그리고 가족 근황

저희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유럽 지역 선교사들의 선교대회가 올해에는 지난

4월에 독일 오버베젤(Oberwesel)에서 열려 다녀왔습니다. 사상 최대 인원(150여명)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고,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목회자, 신학교 교수 등의 강사진들의 강의와 말씀을 통한 은혜도 풍성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선교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저녁 집회 찬양 인도로 섬겼습니다. 최호진 선교사는 그동안 한인교회협회 회계로 2년간 섬겼다가, 이번 대회 중에 임원이 개선되어 향후 2년간 총무로 섬기게 되었고, MK 청소년 담당 위원으로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변혜선 선교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위원회 서기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PCK 유럽 선교사 대회]

최호진 선교사는 작년 하반기부터의 왼쪽 어깨와 팔 통증 물리치료를 2월 중에 감사히 마치고 꾸준히 운동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일상 생활이나 수면 중에 거의 불편을 못 느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낭트에 온 4년간 매년 4-6월 중에 겪는 계절성 꽃가루 알레르기 증세가 다시 나타나 관리 중입니다. 예년보다는 증세가 한결 가벼워져서 작년까지는 각막염과 비염을 함께 앓다가 올해는 각막염 증세만 겪고 있습니다.

첫째 수현이는 경영학 석사 과정 중에 하는 인턴 과정을 파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으며 7월 중에 마치게 됩니다.

둘째 수인이는 고등학교 1년 과정을 6월 중에 마무리합니다. 발목 통증 유발하는 혈관종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중에 최근 낭트 대학병원 담당 의사를 만나 약물을 조금씩 더 줄이고 꾸준히 운동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을 진행했던 치아 교정도 상반기부터 진행 중입니다. 9월에 시작할 고등학교 2년 과정부터는 진로 분야를 정해야 해서,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였고, 꾸준히 익혀온 피아노를 바탕으로 음악 분야 진로를 택할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5. 기도제목

1) 2월 큐티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에 초대된 한불가정들을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프랑스인 배우자들의 마

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2) 관계전도로 인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예배 참여와 세례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3)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청년들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좋은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4) 프랑스의 교회들과 재불한인교회 협회, 한인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이단 사이비 문제에 적극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단 사이비의 속임수를 잘 분별하며 대처해 가는 프랑스 개신교 연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프랑스 낭트에서 최호진, 변혜선 선교사 올림

-----  
PCK 파송 선교사

프랑스 개신교 연맹 공인 선교사

낭트 한인교회 및 프랑스 북서부, 남서부 등지 순회 사역 담당  
-----

[연락처]

프랑스 휴대전화: 최호진 +33 7 82 31 23 28 / 변혜선 +33 7 67 94 63 55

이메일: [sthojin@gmail.com](mailto:sthojin@gmail.com)

카카오톡 아이디: sthojin

[프랑스 선교 후원 계좌]

145-910300-99107 하나은행 / 예금주: 최호진

402-21-1274-432 국민은행 / 예금주: 최호진